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 과정 재점검” -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본격 가동 -

- 재정운용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제도와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 발굴·개선
- 1)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2)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회복, 3)부정행위 (주가조작, 담합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등 논의
- 임기근 차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운용 과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끊임없이 발굴·개선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해야”

기획예산처는 5.7일(목) 13시 30분, 재정정보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정운용 과정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임기근 차관을 팀장(간사: 기획조정실장)으로 내부위원(과장급) 3명과, 재정분야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하였다.

* (팀장) 차관, (간사) 기초실장, (내부위원) 미래전략과장, 예산정책과장, 재정성과총괄과장 (외부위원) 김현아 본부장(조세재정연구원), 하태원 교수(부산대학교), 김정훈 원장(재정정책연구원),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우석진 교수(명지대학교), 신윤성 박사(산업연구원)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 실무진 중심으로 브레인스토밍 회의(3회)를 통해 발굴(Bottom-up)한 과제와 외부위원 제안(Out-in) 과제를 바탕으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재정운용 정상화는 단순한 지출절감이나 일회성 점검에 그쳐서는 안되며, **재정운용 과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점검하는 과정**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회복 ▲부정행위(주가조작, 담합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등과 같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임기근 차관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제도 하나를 고치는 차원을 넘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을 스스로 드러내고 바로잡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며, “특히 기획예산처는 개별 재정사업을 넘어 재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운용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개선하고, 현장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논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과제를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초 예정된 2차 회의에서는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도 국민에게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 | | | | |
|-------|------------------|-----|-----|---------------------------|
| 담당 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류승수 (044-214-1410) |
| | | 담당자 | 서기관 | 이홍섭 (leehs86@korea.kr) |
| | | | 사무관 | 박제용 (jypark0601@korea.kr) |

